

하늘을 보이신 하나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교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하나님께서서는 하늘, 곧 영의 공간에 계시고 우리 인생들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이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평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의 공간 전체를 의미하지요. 땅에 속한 사람은 원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지만물의 오묘한 질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때를 좇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지요. 종종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천국과 지옥 같은 영의 세계를 보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함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자녀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하늘'을 이 제단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이 제단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뜻하신 섭리를 이뤄오셨지요. 과연 '하늘'을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하늘을 보이셨습니다

이 제단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 곧 '오중 복음'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지요.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주를 믿는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부단장 하는 때이지요.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이 참입과 부활 이후의 일들에 대해 밝히 증거해 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증거했지요. 물론 이로 인해 신비주의라는 판단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활'은 물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묻어 두거나 형식적으로 언급할 뿐이지요. 그러나 본 제단은 복음의 모든 요소, 곧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만세 전에 감추어진 구속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부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인간경작의 섭리와 영의 세계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들까지 선포했지요. 이에 많은 성도님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가운데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썼고 있습니다(벧후 1:4).

특히 하나님께서 밝히 풀어주시는 천국 처소의 분류와 상급, 영광'에 대한 말씀은 신앙 성장의 축진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민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가 되기를 힘써왔지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지옥의 실체를 알았기에,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좇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만을 힘써왔지요. 이처럼 우리가 잠자 들어갈 천국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 밝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밝히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 주의 종이 된 후에는 더욱 영이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술한 금식과 철야를 하며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상의 난해 구절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현재 65개 언어로 번역, 발간 중인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저서 『십자가의 도』가 그 대표적인 열매이지요(8면 참조).

고린도전서 2:9-10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난 30여년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의 깊은 말씀을 풀어주시므로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권능'으로 하늘을 보이셨습니다

시편 62:11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신 대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단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요. 또 깊은 영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셨음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권능을 나타내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곧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한계가 없는 곳을 알려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이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 믿음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권능의 역사가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대형 집회 및 각종 세미나를 통해 베풀어진 치료의 역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G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성경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위성, 케이블, 공중파 방송을 통해 170여 개국에 송출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하루 24시간, 지구촌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요. 그런 만큼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GCN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전 세계로 하루 세 차례 활자기도가 나갑니다. 이를 통해 치료받고 기도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지요. "화상을 통해 환자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말기의 암 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죽어버린 시신경, 청신경이 살아나 보고 듣게 됐습니다.", "음직임이 멈췄던 태아가 다시 움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이처럼 연일 놀라운 간증을 보내옵니다.

요즘에는 기록 미디어 인빅토리 독자들이 TBN 러시아 시청자 등 많은 분이 정기적으로 수백, 수천 건의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이 제목들을 위해 일일이 기도할 수 없기에 전체를 마음에 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응답받은 간증을 알려 오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발행되는 교회 신문과 매주 방영되는

만민매거진, 매년 개최되는 WCDN 국제기독교학콘퍼런스를 통해 대표적인 간증들만 전해드리고 있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간증이 끊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회 신문 '만민뉴스'는 550호 가량 발행됐고 만민매거진은 750회 가까이 방영됐으며 WCDN 콘퍼런스는 내년에 10회를 맞습니다. 그러기까지 참으로 많은 간증이 소개됐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을 들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흘리셨지요.

이처럼 주요 매체들을 통해 소개된 간증은 개인이나 가족이 체험한 은혜로운 간증부터 교회나 국가가 체험한 기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만민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늘에 계셔서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국가적 사안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영혼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가 있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구름이 들어가고 나오는 기사를 보신 때를 기억하십니까? 일정한 높이 하늘에서 한 때의 구름이 쏟아져 나왔다가 사라졌지요. 누군가 맑은 하늘 뒤편에서 구름을 풀어놓았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것처럼 구름들이 나타났다가 곧장 휘발라듯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외에도 차원이 다른 공간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리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련회나 성회 장소를 향해 다가오던 태풍이 경로를 바꿔 물러가거나 사라져 버렸지요. 수개월 동안 가뭄이 분령이 일어났던 지역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여름 날에도 수련회장에는 에어컨 바람을 툫 툫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의 공간을 통해 쏟아져 내린 수많은 잠자기가 벌레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고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내려앉았지요. 또 만민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2중, 3중, 4중, 각종 희한한 무지개를 하늘에 펼쳐주시므로 만민을 향한 사랑과 언약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별들이 영의 공간을 타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고 춤추었지요.

작년부터는 색색의 오로라 빛을 통해 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색의 아름다운 빛으로 새 예루살렘 성, 천사, 천국의 과일과 꽃, 물고기, 말굽의 겹, 악기 등의 형태를 보여주심으로 천국 소망을 더해주셨지요. 하트, 언약의 반지, 꽃다발 형태 등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

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옥불, 지옥사자, 해골 같은 지옥의 광경까지 보여주셨지요.

이 또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희한한 능을 통해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본 듯이 손으로 만진 듯이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또렷한 실상으로 느껴며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찬양 문화'를 통해 하늘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예술평화선교의 중요성을 주관받아 예능위원회를 양성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성장해온 예능위원회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문화를 통해 영의 세계를 구현해 왔지요. 찬양, 무용, 연주, 영상, 의상, 소품 등 그 분야도 폭넓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로써 아름

다운 빛과 소리가 가득한 천국, 찬양이 멈추지 않는 천국, 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비취심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여 왔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찬양을 통해 천국에서의 매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느끼고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합대성회 등 해외선교를 할 때도 각종 예배와 집회 시에 잘 준비된 예능팀들이 공연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참석자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찬양을 친히 주고 계십니다. 찬양의 곡과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충만한지요.

교회 행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주제와 기쁨으로 이루고 있습니다(6-7면 참조). 이를 통해 만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밝히 알아가고 있지요. 또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의 향을 올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과연 어떤 향을 올리게 될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21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 곧 하늘의 찬송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간 이 제단에 끊임없이 '하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 같지만 사실 값없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영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라고 분명히 송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정확한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과 마찬가지로 만민의 목자로 세우신 저와 일꾼들, 성도님들에게도 때를 따라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셨지요. 이로 인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벧전 1: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보이신 하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개척 후 77일 만에 170여 명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여 개의 교회가 속한 초대형 교단을 이루 창립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단을 통해, 그 품안에 수많은 열방과 열왕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p> <p>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p> <p>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p>	<p>교회 가는 길</p>	<p>☎ 교황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말, 공휴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대</p> <p>☎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8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 2번 출구 도보 10분</p> <p>☎ 시외버스 디지털단지 2호선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2,5774 영남고속도로점/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69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9616(내선), 9616(내선 반)</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p> <p>주일 대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성결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성결교회 예배 수요일예배 화요일예배 [한·가·인·천·천·바·을·마·리·아] 빛과소금 수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중·고·동·부] 토요일예배 [아동부] 다. 일요일 기도회 9:00 PM (예배/ 찬.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예배/ 찬. 토요일은 제외)</p>	<p>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p> <p>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은 장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합니다.</p> <p>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용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매주 주 위성명)</p> <p>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6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p>
--	-----------------------	--	--	--

성령의 역사로 이룬 감동의 17대 뉴스

1982년 7월 25일, 만민중앙교회는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설교로 개척 예배를 드린 후 77일 만민 10월 10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표어 아래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씀과 권능, 그리고 사랑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로 무수한 사람이 생명과 변화로 나왔다. 만민의 30년 역사는 인간경작을 총괄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교회를 세우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성도들을 위로하신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감동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로 이룬 감동의 사건들을 돌아본다.

1. 1982 교회 개척 및 창립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교회 개척을 준비한 결과, 13명의 성도에서 현재 국내 약 13만 명으로 부흥하고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하다.

2. 1987 책자, 신문으로 문서선교 시작

80여 권의 이재록 목사 저서가 74개 언어로 번역 및 발간 중이며 매주 발간하는 교회소식지(만민뉴스)가 25개 언어로 발행되다.

3. 1992 교계 행사 및 국내선교 시작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92 세계성령화대성회' 공동대회장, '95 광복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실무대회장 등으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다.

4. 1993 개척 11년 만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

미국 '크리스천월드'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해외에서는 워싱턴 집회를 시작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다.

5. 1998 교회 행사 때 사랑의 증표인 원형 무지개 첫 출현

영이신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원형 무지개(계 4:3)를 비롯해 각종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다.

6. 1999 방송의 왜곡 편파보도로 촉발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제7회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기간 중 발생한 모 방송 사건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의 기폭제가 돼 해외 집회 시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 '손수건 기도' 시대가 열린다.

7. 2000 제2도약기를 맞아 창조의 권능으로 세계선교 시대 도래

전라남도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출 15:25)가 나타나고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세계선교를 창대히 이뤄가다.

8. 2002 연인원 300만 명 이상 참석한 '인도 연합대성회' 개최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의 '강제 개종 금지 규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300만 명 이상 참석해 수많은 힌두교도가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개종하는 등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16. 2012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한 하계수련회

전국 및 해외 23개국에서 참가한 수련회 장소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도 시베리아에서 온 듯 찬바람이 불어와 시중 시원한 날씨 속에 진행하게 하시며 구름의 움직임, 이동하는 별과 온몸에 날아와 있는 신기한 잠자리 등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다.

15. 2011 감동의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근본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기관장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탄절에는 많은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을 허락하시며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전 성도의 믿음에 '합격' 점수를 주시다.

14. 2010 전 성도 영적 성장 축복의 역사

전 성도가 성탄절을 맞아 영적 성장을 저해하던 과거의 죄와 허물들을 찾아 통회자복함으로 구원은 물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받다.

13. 2009 세계 10대 기독교 지도자 선정 및 '만민찬양'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와 영어권 기독교 포털 사이트 '크리스천 텔레그래프'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독교 지도자'에 이재록 목사가 2년 연속 선정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 속에 전 세계 만민이 부를 수 있는 160여 곡의 맑고 깨끗한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주시다.

12. 2007-2009 주님의 자취를 따라 777일 이스라엘 선교

복음의 시작점임에도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던 땅 끝 이스라엘에 3년간 12차례에 걸쳐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하다.

11. 2006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전파된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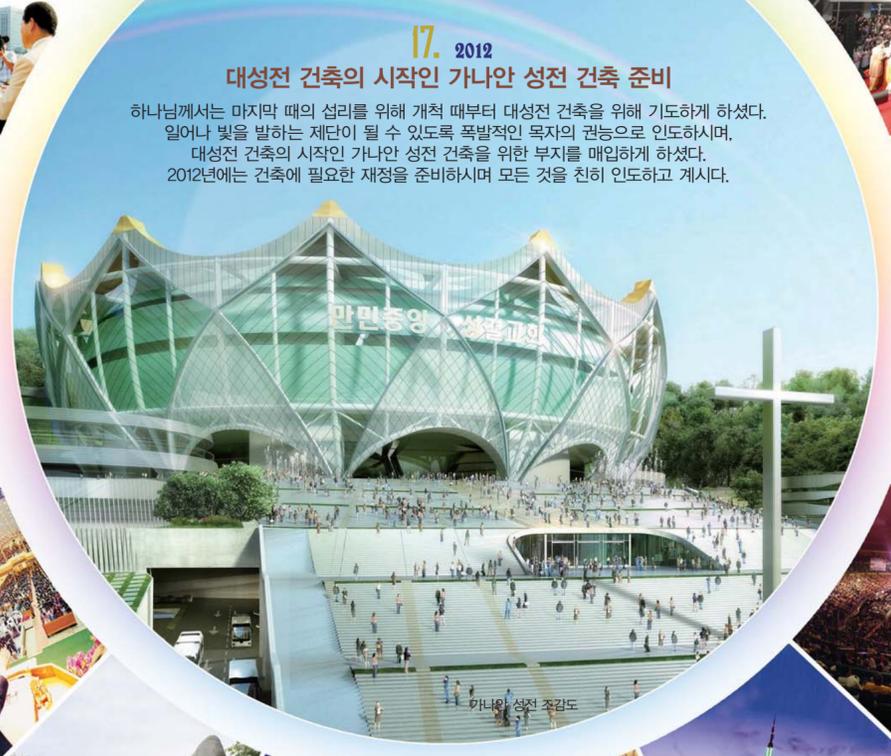
뉴욕 주 상·하원, 뉴욕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스포츠인들과 예술인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연합대성회가 열린다.

10. 2005 순수기독교방송, GCN 방송 개국

GCN(Global Christian Network)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찬양과 기도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하다.

9. 2004 하나님 권능을 과학으로 입증하는 WCDN 설립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를 설립해 매년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기독교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성경이 참임을 전 세계에 증거하다.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하늘과 땅'의 향연

크리스탈 배

MANMIN

아름다운 보석들이 - 가득한 세에 무살렘 - 푸르
롭고 신비로운 - 빛들이 펼쳐진 곳 - 사랑
꿈 - 엔들이 이루어질까 - 언제 나이 이루어질까 - 에타
고 푸른 바다 밑 - 에 아름 - 다운 고기를 보네 평화 - 네 눈 앞
하 - 는 사람들 - 과 푸른 - 물속 헤쳐나가
게기 다리런기 다렵아 - 림 - 답게 이루어졌

에 계신 아버지 내 - 주 - 님 목 자 님 내 -
사 랑의 - 마음 을 전 해 드 리 네 찬
양 합 니 다 영 원 - 토 - 록 아 름 다 운 세 에 무 살
렘 - 그 - 곳 - 에 있 게 - 하 심 - 을 찬
양 합 니 다 그 아 름 다 - 운 영 광 의 빛 내 아 버
지 빛 내 - 게 - 도 있 게 - 하 심 을 찬 양 - 드 리 네

Copyright © 2010.2.3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목자의 성

MANMIN

푸 르 는 나 무 들 과 나 예 - 림 꽃 들 이 가 득 한 내 가
빛 - 나 고 빛 나 는 열매 들 향 기 뿜 나 는 꽃 들 내 가

꿈 꿰 - 던 천 - 국 내 목 - 자 샅 렘 목 자 성 내
꿈 꿰 - 던 천 - 국 내 목 - 자 샅 렘 목 자 성 내

마 음 가 두 름 - 러 오 - 는 말 할 수 없 는 이 - 기 - 림 내 -

가 늘 꿈 꿰 왔 - 던 그 - 곳 세 에 - 무 살 렘

Copyright © 2012.1.1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하늘과 땅'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 오직 하나님 뜻만을 바라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온 목자의 수고가 하나님 기쁨이 된 만민 제단의 창립을 맞아 위로는 하늘의 천군천사와 땅에서는 경각반은 성도들이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창립행사 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찬양, 연주, 무용곡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심으로 영의 공간의 일들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과 사랑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주셨듯이(신 31:19~22)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를 담은 찬양, 연주, 무용곡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2010년 창립 28주년 축하공연은 '바다에서의 연회'라는 주제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다에서 베풀어지는 연회를, 2011년 창립 29주년 축하공연은 '목자의 성'이라는 주제로 새 예루살렘 성에 예비된 아름답고 황홀한 목자의 성을 중심으로 그곳에서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펼쳐 보여줬다. 이번 2012년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하늘과 땅'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공연으로 시작된다.

Section 1. 오프닝 Opening

1. 만민의 태동과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표현한 '천지개벽'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진 만민중앙교회의 태동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 온 30년 역사 속에 맺히진 열매들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큰 우주 공간이 열리면서 그 안에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와 하나님의 웅장하고 맑은 소리가 담겨져 있고, 손에 깃발을 든 천사들과 많은 천사장이 웅장한 소리와 함께 근엄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연주로 표현했다.

2.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음악'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선율과 무용으로 하늘에서 만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빛들이 피치고 옷자락 끝에서는 빛의 여운이 감돌며 한 바퀴 돌 때마다 머리에 쓴 화관에서는 빛이 발산해 머무는 모습을 여러 천사들과 꽃잎 등을 통해 표현했다.

3. 웅장한 행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하음악 행진'
가수와 나팔수 등 왕의 행차에 앞선 축하 사절단의 힘찬 행진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때 '세계를 향해 성령의 권능을 전하는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향을 올린다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4. 팡파르

Section 2. 하늘 Heaven

5.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나팔 천사장들의 힘찬 무용'
여러 종류의 나팔을 들고 금관을 쓴 나팔 천사장들이 "만민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의미의 향을 담아 올려 드리는 작품이다.

6. 만민이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무용 천사들의 무용'
마치 천국 연회장에 앉아 이 땅에서 경각반을 때의 일들을 회고하듯이 만민의 30년을 회

고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30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셨지요? 목자님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이때에는 눈물 흘리셨지요?" 하는 등 무용 천사들을 통해 만민의 30년 역사가 읊어지는 내용의 작품이다.

7.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찬양 천사들의 찬양'
'아름다운 곳에서 올려 나오는 찬양', '어려르신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있는 곳'이라는 노랫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각종 악기들을 들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천사장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우리 성전을 '아름답다' 하시고 성도들을 '어여쁘다' 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Section 3. 땅 Earth

8. 우리 마음을 모아 올려 드리는 '우리들의 무용'
전 성도가 기도와 금식, 찬조, 봉사 등 각각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교회 창립 행사에 예능위원회가 대표로 우리의 기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작품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올려 드리는 무용에 대한 담례로 궁중 연회 형식의 무용으로 만들었다.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늘도 땅도 아버지께 영광 기쁘도다 기쁘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쁘도다 기쁘도다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9. 기쁨을 표현한 '우리들의 찬양'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 온 만민중앙교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올려 드리는 작품이다. 우리의 행복한 마음을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표현했다.

우리 모두 기쁨의 찬양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영광 하나님 주신 축복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기쁘고 기쁘도다 이 날의 기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섭리 안에 세우신 제단

10. 우리 모두 함께 올려 드리는 찬양 '하늘과 땅'
전 성도가 이번 공연의 주제곡 '하늘과 땅'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행복한 시간이다.

우리 입술을 모아 모아 크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 모아 크신 주께 할렐루야
내 마음 모아 기뻐 찬양하네 날 살리시며 이끄시네
내 마음 모아 기뻐 찬양해 영광을 돌리네 아버지께 찬양
우리 입술을 모아 모아 크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 모아 크신 주께 할렐루야

찬양 천사들의 찬양

MANMIN

아름다운 곳에서 올려 나오는 찬양 아
버지의 이름 영화롭게 하도다 기요
하 고 고 요 한 아 버 지 공간 안 에 그
이 름 답 아 두 사 영 - 광 을 얻 게 하 셧 네 어
여 빠 신 - 이 - 들 의 아 름 다 운 - 찬 양 - 있 는 곳 그
분 의 눈 - 이 이 곳 에 머물 러 있 도 - 다 그
들 의 찬 - 양 을 기 뻐 받 으 시 고 - 받 으 시 니 - 그
분 은 아 름 다 우 신 이 아 버 지 하 나 님

Copyright © 2012.3.27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천사장과 천사들의 찬양

MANMIN

젊은이 의 마음처럼 푸르른이 빛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드신 이곳 오색
빛아름다운 물결에서 노니는 고기들의 향 - 연 서로
서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크신이 의이름을 여드 - 리네 모두
가 - 모두가 찬양드려 아름답고 넓으신이 - 림 아름
답고 넓으신이 림 - 색색들이 나오 는 빛이 아름
다 음 의 향 기 울 러 드 리 네 색 색 들 이 나 오 는 빛 이 아 름
다 음 의 향 기 울 러 드 리 네 아 름 다 운 빛 아 름 다 운 고 기
많 은 것 들 - 이 찬 양 드 리 네 곳 곳 마 다 모 두 가 찬 양 드 리 네 서 로
서 로 아 름 다 운 마 음 으 로 크 신 이 의 이 름 을 여 드 - 리 네 모 두
가 - 모두가 찬양드려 아름답고 넓으신이 - 림
아 름 다 운 의 마 음 을 아 름 다 - 운 - 의 마 음 을

Copyright © 2010.2.3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